折にふれて歌へる[[1]](#footnote-1)

李光洙

天地のいづくはわが家ならざらむ仰ぐ御光果てしあらねば

천지天地 어디는 우리 집 아니랴, 우러를 빛은 끝이 없으니

好き人の文讀む程に何時となく申す身となりにけり

　好き人＝数寄人=風流な人、物好きな人

~~훌륭한 사람의~~ 유별난 것을 좋아해서 글 읽는 중에 어느 결에 염불念佛 아뢰는 몸이 되었네

のの民草と君わが君と仰ぎまつらむ

한토韓土의 이천만 민초民草와 함께 님을 우리 임금님으로 우러러 받들리라　 ~~임금님을 , 우리 임금님하고~~

とこしへの濁りに喘ぐ黄河の流れも澄みて君が代となる

영원한 탁류에 신음하는 황하黃河의 흐름도 맑아져 천황의 치세가 되네

の我がの夜も明けぬらむかの雲の端に映ゆる

（ずっと暗かった私の魂の夜も明けたようだ。あの雲のはしに曙が映えている）

늘 어두웠던 내 영혼의 밤도 다 밝아졌나 봐 明け-ぬ(完了）-らむ(推量）すっかり明けたようだ。~~밝히려는 듯~~ 　저 구름 끝에 새벽빛이 비추는 걸 보니.

恩愛の羈絶ちてぞ恩愛のえにしのものを救ひこそせめ

은애恩愛의 굴레 끊고야 은애의 인연 닿는 자를 구제할 것이다 救ひ-こそ-せめ ~~구제하는 일이야말로~~

たちて-ぞ（強調）＝断ってこそ +　救ひ-こそ-せ（すの未然形）-め（むの已然形）＝救うのである

　　　　　「こそ」は已然形にかかり強調をあらわす

われと云ふかたきを討ちてそのたゝかひは去年も今年も

나라고 하는 원수와/적敵과 싸우기를 48년, 그 싸움은 작년에도 올해도

まごゝろのしめすにひたすらにわれは生きなむその日その日を

　참된 마음~~을~~ 이 가리키는 마코토眞에 충실하며  ~~한결같이~~ 나는 살리라, 그날 그날을 ~~에~~

진심이 가리키는 진실 을 그저 따르면서/에 충실하게 나는 살겠다 그날그날을

ひととせを又なすなくて過ごしけりあくる年はと又誓ひつゝ

한 해를 또 이룬 것 없이 過ごし-けり（過去/詠嘆）보내었~~는~~구나. 이듬해에는, 하고 또 맹세하면서

1. 『東洋之光』1939年2月号 [↑](#footnote-ref-1)